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안>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세상을 바꾸자!

1. 2000년 민주노조 운동의 과제
- 5월 총파업, 4.13총선 투쟁
2. 노동자 정치세력화, 현주소는 어디인가?
3. 정치! 이젠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4.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무엇인가?
5. 2000년 민주노동당이 출범했다.
6. 4.13 총선투쟁의 목표
7. 이렇게 실천합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2000년을 민주노조 운동의 과제 - 5월 총파업, 4.13총선 투쟁

㉠ 광풍처럼 몰아친 신자유주의 - 가진자에게 천국, 없는자에게 지옥

‘경제를 살리자’며 김대중 정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로 한국사회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는 엄청난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졌고, 노동자의 삶을 죽음의 길로 몰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가 좋아졌다고들 한다. 웬지 국민들의 소비수준도 IMF이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줄라뻤던 허리띠도 조금씩 풀어내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 서민의 삶은 어떠한가?

80:20의 빈부격차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으며, 아직도 10%대의 고실업과 고용불안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의 52%, 최근 신규채용은 92%가 비정규직으로 취업되고 있음) 축소되고 있는 복지수준

이렇듯 노동자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5월 총파업과 4.13총선투쟁으로 바꿔내자.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뭔가 경제가 좋아진 것 같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국민소득 1만 불, 빈민은 1천만명’인 빈익빈 부익부 사회, 가진자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천국이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고달프고 힘든 고통의 사회가 된 것이다.

2000년을 맞는 노동운동의 과제는 이러한 현실로부터 출발한다.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기조를 바꿔낼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노동자들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2000년에 5월 총파업 투쟁,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건설, 조직정비와 노동운동 발전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실천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였다.

2000년 5월 우리는 왜 총파업 투쟁을 해야 하는가? IMF이후 지금까지 노동자, 민중이 받아온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막아내고, 잘못된 한국사회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것이다.

또 4.13총선 투쟁은 이 잘못된 사회구조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정치, 정당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총선투쟁 과정에서 그들의 잘못된 정치, 경제정책에 썩기를 박아야 한다.

여기서는 2000년의 주요과제 중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우리들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본다.

2. 노동자 정치세력화, 현주소는 어디인가?

㉠ 우리들의 자화상

노동자와 정치,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처럼 멀게만 느껴진다.

TV에서는 연일 4.13 총선을 둘러싸고 집없는 철새처럼 왔다갔다하는 정치꾼들의 이합집산과 신당창당, 지역감정 문제가 보도되고 있다.

그럴수록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심해져만 간다.

한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전국 30여개 지역에 후보를 낸다고 한다.

어느 지역에 누가 나오는가? 나오면 당선될 것인가?

더러운 흙탕물인 정치판을 갈아엎고, 맑고 깨끗한 민주정치의 실현은 가능할까?

민주노동당은 기존 보수정당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왠지 좀 부담스럽다.

여러 가지 생각은 정리되지 않은채 머리속을 맴돌고, 나는 오늘도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한다.

심지어 어떤 민주노총 조합원,

“민주노동당? 북한에는 조선노동당이 있다던데, 혹시 ? ” 하는 의문을 갖는다.

이것이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현실이다.

㉡ 97년 대선때를 돌아보자.

9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얻은 표는 30만표.

조합원 60만명 중 절반이 권영길 후보를 찍지 않았다.

그 당시 권영길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지만,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죄여 올것이므로, 노동자의 뜻을 모아 정리하고 반대투쟁으로 정치적으로 집결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 중 상당수는 ‘이번에는 김대중’을 하면서 찍었다.

그 결과, 노동자에게는 무엇이 돌아왔는가?

신자유주의적인 ‘김대중식 IMF 해법’으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칼날아래, 400만이 실업자가 되었다.

㉠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몰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의 국회의원 정몽준은 무엇을 했는가?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때 찬성했고, 실업자 양산에 앞장서 왔다.

울산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아내, 아이들과 함께 40일간 텐트농성 투쟁을 했다. 정몽준은 정리해고, 파견법, 전임자 임금부지급을 모두 찬성했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노동자의 삶과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 97년 총파업, 우리는 투쟁했지만 악법을 바꿔내지는 못했다.

97년 민주노총은 노동법 날치기에 반대하며, 위력적인 전국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전국민의 호응을 받으면 연 150만명이 참석했었던 총파업 투쟁으로도, 노동악법을 바꿔내지는 못했다.

재개정 해야할 노동법은 파업현장에서 이뤄지는 것도, 양심적 시민단체가 하는 것도 아닌, 보수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주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투쟁했지만 노동자를 지지하고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정당도, 정치적 힘도 없었다.

3. 정치! 이젠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

1) 노동운동의 쌍두마차 - 노동조합과 정당

세계 여러나라의 사례를 보면 노동운동은 노동조합과 정당이라는 두 쌍두마차가 함께 움직이면서 발전해왔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정당이 있다. 영국의 노동당, 독일과 스웨덴의 사민당, 브라질의 PT당 등이 그 예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듯이, 노동자가 노동자의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2) 노동자가 무슨 정치? 노동자가 이젠 정치를 !

‘노동자가 무슨 정치?’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 고 얘기해도 우리는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구나 한번쯤은 ‘법과 제도’라는 것 때문에 고민해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 ‘법과 제도’의 부당함으로 인해 한번쯤 피해 안 입어본 사람도 없을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은 노동법 조항 하나, 정리해고 기준 하나의 변화로도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그 ‘법과 제도’는 누가 어디서 결정하는 것인가?

바로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모인 국회에서 결판나는 것이다.

나와 상관없다고 정치에 무관심하면, 피해보는 것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 자신이다.

누가 노동자의 편인가? 노동자의 투쟁을 누가 지지하는가?

우리의 요구와 투쟁의 성과를 모아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 97년 총파업 투쟁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훈이다.

우리는 노동악법 철폐를 위해 영웅적으로 투쟁했지만, 국회에서는 누구도 노동자의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노동법은 개악되었다.

노동자의 정당, 노동자 국회의원, 그리고 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함께 결합되었을 때, 노동자의 요구는 관철될 수 있다.

3) 한국사회를 책임지는 대안세력으로 노동자가 나서자.

민주노총의 투쟁, 노동자의 투쟁을 한단계 발전시켜내고, 성과를 모아내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정치에 나서야 한다.

노동운동의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대안세력으로 서기 위해서 구호로만 외쳤던 정치세력화를, 이제는 진짜 이뤄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무엇인가?

4.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무엇인가?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란?

말 그대로 노동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힘있는 세력으로 조직되는 것을 말한다.

즉 노동자의 이익을 정치, 사회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동자 정치세력화 = 노동자의 사회세력화 + 정당조직화> 로 집약할 수 있다.

2) 노동자가 정치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자 자신이 유의미한 사회세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사회세력화)

우리는 60만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총으로 뭉쳐져 있다.

우리는 조직되어 있고 97년 총파업 투쟁에서 보았듯이 투쟁력도 있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 등 민생문제를 내걸고 투쟁할 수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있는 세력중에 하나다.

민주노총은 합법화되었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도 꾸준히 키워왔다.

이러한 노동자의 주체적 조건을 볼때, 노동자의 사회세력화는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더욱 강력한 노동자의 사회세력화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조직률을 높이는 문제, 산별 노조 건설 및 타 사회운동과의 연대 등의 활동을 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당이라는 정치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 정치세력화의 최고 형태는 정당이다. 민주노총은 이제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정치적 조직, 정당을 갖어야 한다.

- 정치적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국회에 진출하고 나아가 집권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3)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노동자의 이익을 사회.정치적으로 관철하고, 나아가 보수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권력을 바꿔내어 궁극적으로 한국사회를 바꿔내는 근본적인 변혁을 이뤄내려는 것이다.

5. 2000년 민주노동당이 출범했다.

1) 민주노동당의 출범

- 2000년 1월 30일 보수수구 세력에 의해 독점되어온 정치권력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출범했다.
- 민주노동당 출범전에도, 우리에게진 진보정당의 경험이 있다. 민중당, 한국노동당 등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했다. 기존의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만큼 노동자들은 진보 정당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 이러한 반성속에서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건설운동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민주노총은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노동자와 함께 하는 정당,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만들 것을 결의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민주노동당이다.
- 선거때만 반짝하는 정당, 조합원과는 너무도 먼 상층중심의 정당,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정당은 이런 정당이 아니다. 이런 정당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몇몇 상층이 아닌 현장속에서 조합원과 함께 투쟁하며 신뢰받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2) 민주노동당, 이런 조직이다.

(1) 노동자의 투쟁과 함께 하는 정치세력화!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란 국회의석 1,2개 따는 것이 아니다.
- 이번 4.13총선에 민주노총 후보 10여명, 민주노동당 후보 2-30여명이 나간다. 이 후보들 중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지역본부장, 단위노조 위원장,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도 있다.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선봉에 설 것이다. 민주노총 3대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썩은 보수정치를 심판할 것이다.
- 구조조정(자동차, 공공부문)을 비판하면서 4월 투쟁으로 조합원을 묶어세우고, 5월 총파업 투쟁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4.13 총선과 구조조정 투쟁, 5월 총파업 투쟁을 결합.발전시켜 낼 것이다.

(2) 민주노동당, 어떻게 볼 것인가?

-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고 조합원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있다. 진보정당 중에는 청년진보당도 있고 또 다른 길이 있다. 조합원 개개인이 정당에 대해 다른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보장되어야 한다.
- 다만 현재 추진되는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의 결의에 의해서 진보세력이 함께 만든 조직이다. 따라서 잘 되야 하며, 또다시 실패하면 국민들 모두가 노동자나 진보세력에게 어떠한 기대도 걸지 않을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4.13 총선과 상반기 투쟁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 대해 조합원마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꿔내야 한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외면하면 또 한번 진보정당은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안게 될 것이다.

- 지금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출발하자. 그리고 잘못된 것은 참여해서 고쳐내자.
- 전체 진보정당을 하나로 묶어내고 강화시켜낼 역할과 책임은 민주노총의 몫인 것이다.

㉠ 외국 사례

- 노동자 정당이 있는 유럽과 미국, 일본은 노조활동에 큰 차이가 있다. 임금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고용안정.사회보장.복지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 유럽의 대다수 나라는 노조와 정당이 양립한다. 하지만 상호독립적이면서 동시에 긴밀한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만 정치적 입장에 따라 노조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 영국의 노동당, 독일과 스웨덴의 사민당, 프랑스의 사회당 등 유럽의 대다수 나라에서는 노조가 중심이 된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다.

<스웨덴>

90%에 달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사민당은 장기간 집권을 해왔다. 정부각료중 대다수가 노동조합 지도자 출신이며 조합원들은 수많은 지역의 씨클에 가입하여 사민당의 민주주의를 뒤받침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자본의 폭압적 탄압을 뚫고 발전해온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정당을 건설하였다.

6. 4.13 총선의 목표

1) 4.13 총선투쟁을 총파업 투쟁의 교두보로 삼는다.

-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명의 후보를 낸다.
- 후보를 내는 이유 → 후보전술을 통해 총선투쟁을 지역, 연맹의 투쟁으로 결합. 발전시켜 내기 위한 것이다.
- 민주노총 후보들은 총선시기 민주노총의 요구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키고 공감대를 넓혀내는, 넓은 의미에서의 총파업 조직화 과정이다.
- ‘선거따로, 투쟁따로’로 선거와 투쟁이 분리되지 않도록 지역과 현장에서 조직해 내야 한다.
- 즉 5월 총파업에 앞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총선시기에 쟁점화시켜 내고, IMF를 불러온 보수정치권을 심판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그런 의미에서 총선공간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바꿔내기 위한 또하나의 투쟁공간이다.

2) 민주노동당의 기반 확대와 조합원 정치의식 강화

- 이번 총선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향후 10-20년을 가늠하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 따라서 당원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높여 진보정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야 한다.

- 당은 당원들에 의해 유지된다. 우리가 당원으로 가입하고 참여하여 당을 강화해야 한다.

- <예> CBS 뉴스 퀴즈

“ 한국정당 중 당원이 제일 많은 곳은? ” <답> 민주노동당 12,000명

- 당원이 5만, 10만명이 된다면, 의석수가 문제가 아니다. 설사 의석수를 못판다고 해도 당원배가 운동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진보정당에 대한 조합원의 의식은 높아질 것이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현실화될 것이다

3) 국회에 진출한다.

- 민주노동당이 유의미한 진보정치세력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지지율과 의석수를 확보해야 한다. 1석 이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7. 이렇게 실천합시다.

1) 조합원, 간부 교육 및 다양한 일상사업을 조직하자.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조합원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고 또 잘 모르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다.

- 따라서 각급 회의, 토론, 교육의 장에서 왜 우리가 정치세력화되어야 하는지, 또 4.13 총선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당원가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끈임없이 교육하고 토론하고 조직하자.

- 후보가 나오는 지역은 후보초청 간담회나 노보, 소식지를 통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사업을 배치할 수 있다. 노동자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통해 다른 보수정당 후보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누가 우리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해 줄 것인지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2) 당원 배기운동을 하자.

- 민주노동당 당원은 12,000명이다. 이중 민주노총 조합원이면서 민주노동당 당원인 사람은 6,000명이다. 6,000명은 민주노총 조합원 수 60만명의 1%에 해당한다. 결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 단위노조 상집회의, 대의원 회의, 조합원 현장토론에서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4.13총선’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조직하자.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당원가입으로 모아지도록 하자.

- 그래서 민주노동당 가입에 대해 조합원들 스스로가 가슴속에서 우려나서,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민주노동당 당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3) 조합원 1인당 1,000원의 정치자금 모금운동을 하자.

- 60만 조합원이 천원씩이면 6억, 조합원 1인당 1,000원씩 내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나의 조그만 힘을 보태자.

- 지난 2월 선거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허용되었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이

돈을 걷고 정당에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감옥에 갔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노동자 정치활동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 당원가입과 정치자금 모금을 통해 우리의 힘을 모아가자.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여의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4) 민주노총의 총선 투표 방침

민주노총의 전 조합원은 이번 4.13 총선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요한 분기점이며, 총선승리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승리의 교두보임을 인식하고 아래 방침에 따라 적극 총선투쟁을 전개한다.

① 후보 출마지역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후보를 적극지지하고 선거운동의 주체로 나선다.

② 가족들이 민주노동당 후보를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한다.

③ 민주노총 및 총선연대의 낙선대상자에게는 절대 투표하지 않는다.

-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은 부패한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국민 80%의 지지를 받고있다.

- 기존 보수정당에 대한 불신과 이를 대신할 대안세력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모아, 반노동자 후보에 대한 지역차원의 낙선낙천 운동을 전개한다.

5) 입단투도, 정치도 노동자는 하나.

“입단투때는 동지, 정치할때는 나대로”

“지역감정은 나쁘다. 그러나 고향사람이 좋다.”

이것이 우리 노동자의 현실이다. 그래서 정치권은 노동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투쟁할때도 하나, 투표할때도 하나로 뭉쳐야 한다. 경상도 노동자나 전라도 노동자나 똑같은 노동자다. 이번 4.13 총선때는 노동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 얘기만 하면 불신, 혐오, 냉소... 이제 버리자. 버리고 이젠 참여하자.

영국노동당이 지난 2월 창당 100주년을 맞았다.

190년 2월에 창당하여 2년만에 집권하였다.

영국노동당이 창립할때는 정치적인 힘도 영향력도 없었다.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2년만에 집권하였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멀리보면서 일구어가자.

그래서 우리도 꿈을 꾸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이 멀지 않다.